



# 사회주의대지에 천지개벽의 새 력사 펼쳐주신 불멸의 업적



↑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2월  
← 축산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0(1971)년 5월



함경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64(1975)년 3월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감자작황을 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1(2002)년 10월



안변군 사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5월



장강군 음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9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3월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6월



룡천군 신암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7월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9월

# 《장군님의 한생은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위인이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습니다.》 김정은

## 위대한 생애, 불멸의 업적

# 조국번영의 영원한 뿌리가 되신 헌신의 한평생

우리 천만민들의 마음속에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손구치는 그리움에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는 인민이다.

위대한 령도자,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떠나 오늘날의 빛나는 조국, 존엄높은 인민을 어떻게 생각할수 있겠는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어 오직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강고히 바치시어 조국창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어 절세의 애국자이시니.》

역설 뿌리위에 무성한 거목이 자란다. 나무가 자라고 또 자라서 하늘에 닿아도 더욱 근면하고 완강하게 땅속깊이 뚫고들어가지고 보다 무성하게 줄기와 가지, 잎사귀를 살찌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는 뿌리.

그이께서는 한평생 뿌리로 사시었다.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이라는 거목의 뿌리! ...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강고히 바치신 우리 장군님은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아버지이시다.

일요일은 물론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생신날에조차 위대한 신군장정의 길에 계시었고 한참자 한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시며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과 혁명, 인민을 승리와 영광으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신분이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단 한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었다.

청원가로 막으신 청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45돐을 며칠 앞둔 어느날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걸어오시는 진화를 받기

되었다. 온 나라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소박한 연회를 차리는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실것을 청원하는 편지를 삼가 올렸던 일군은 저 지키 긴장되었다.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바로 그 청원편지때문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시면서 동무가 올러보면 편지에서 온 나라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청원을 잘 읽었다고 따뜻한 음성으로 이야기하시었다. 계속해서 이이께서는 그런데 자신에게도 한가지 청원이 있다고, 그것은 자신의 말대로 해달라는것이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여준다면 나의 말을 들을줄도 알아야 한다. 동무들이 나를 지도자라고 부르는네데 왜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지 모르겠다. 내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으니 제발 내 말대로 생일이라고 떠들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

동무들의 다른 요청을 다 받아주지만 이번 청원만은 절대로 받아줄수 없다고 절결히 하시는 그의 만류에 천만민들의 간절한 청원은 이루어질수 없었고 그해 2월의 명절도 조용히 흘러가게 되었다.

2월 16 일 일요일에 부르려던 합창곡의 대곡장미를 함흥대학교로 교수주시신분도, 한 작가가 창작한 노래 《만영하여라 김정일시대》의 제목을 《만영하여라 로동당시대》로 고쳐주시신분도, 어느 한 군중시인의 가창문을 새기려던 구호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 만세!》를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로 바꾸어주시신분도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한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많지 못 할것이다. 그의 한생은 이런 날과 달들로 이어졌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뿌리로 사신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의 자축자축을 더듬을수록 천만민들의 가슴마다를 뜨겁게 울려주는것이 있다.

우리 장군님의 단별숱이 있다.

우리가 그의 말을 우리처럼 같이 일군은 무디 긴장에 류의하시기를 말씀드리었다.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맙다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것을 해놓아야 하였는데 시간이 한초한초 흐르는것이 안타깝습니다. ...

로동과 휴식은 뱀수 없는 불가분의 판제에 있다. 이 모든것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시었다가 하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일고계시던 단별숱을이 그대로 말해 주고 있다고 추억깊이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어느해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던 나날을 감회깊이 더듬어보 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자신의 숭모에 대하여 이야기하시었다.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오래동안 그 한평생에 안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신 간고한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있으시어 병사들을 힘뿔어 안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신 우리 장군님.

숨은두 오매 입으면 알아져 추위를 막아내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 인민모두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상 제일 좋은 옷을 입으시고 편히 쉬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 않았던가.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단별숱을 입을시고 강행군에서도 다른 강행군으로, 전선에서 전선으로 이 땅을 종횡무진하시며 불같은 한생을 사시었다.

아버지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시는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무엇을 하나 해도 조국의 먼 앞날을 내다보고 후대들을 생각해

하며 전망성있게 만민에게로 하여야 한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을 위한 헌신의 총적목표였다.

인민이 겪는 어려움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저리시지만 그 누가 내 마음 몰라라도 몰라라대도 희망 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는 노래

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선군혁명만리우에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었다. 사하는 끝마데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불굴의 정진력을 심어주시고 기적과 혁신의

한치 못하며 일군은 그의 건강을 바라는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 우리 인민들처럼 좋은 인민이 어디에 있었는가고, 힘이 되는 말을 해 주 감사하다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분초를 아껴가며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정당 인민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로도 지체시키지는것만 같이 일군은 그

나방 자리에 있을수가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 두 대내 이야기 나누고있던 시간이 없어 미안하다고 하시며 견고하고, 건강해야 일을 많이 할수 있다고 사랑을 담아 이르시었다.

이렇듯 흐르는 한초한초가 더없이 소중한것이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심정이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현저지도의 길에 계시었다.

## 조국의 전진을 떠민 한초한초

한초한초... 시야시간마저도 아껴주시어 길에서 한명이 꿇 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고 달리는 차안에서의

폭장으로 쌓이고있던 피로를 푸신 우리 장군님.

그이께서 바쳐가신 인민을 위한 헌신의 거룩한 순간순간들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설계되고 위대한 창조정신이 내재된것 아닌가.

력사는 수많은 이름있는 명도자를 기록하고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과 같이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시간을 쪼개가시며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위대한 명도자를 알지 못하고

오늘도 우리 인민은 누구나 격경속에서 우울하다.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도 매일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본사기자 백 영 III

필수적이유이다. 그러나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시며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면서도 인민을 위해 해놓은 일이 적으신듯 시간이 흐르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니 일군은 무슨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몰라 그이를 울러드린가 하였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자신께서는 시계를 자주 보지 않는다고, 시계를 보면 시간이 흐르는것이 너무도 안타깝기때문이라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시었다.

이 길은 천으로, 만으로 쪼개시며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

더듬어 뜨거워만지는 가슴을 진정

##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고있을 때 이 땅에서는 역사적인 눈보라가 일어났다. 고통과 압박, 봉쇄의 광풍을 쳐갈기고

역풍을 길들이며 우리 조국의 북면에서 일어났던 강계의 눈보라였다.

지나온 년대들이 이땅에 내내 천 시대정신들을 그 얼아였었다. 그 위대한 시대정신들이 줄기차게 판독되어온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은 강계정신에도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사회의수호의 위대한 정신이 창조되던 그 시기 자강도를 현 지지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하는것이 있으나 아니면 완전히 종말을 고하느냐 하는 인류사적문제도 무겁게 실려있던 준엄한 시기였다.

과연 무엇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것인가. 무슨 힘으로 할 나라, 한 민족을 목표로 달려드는 제국주의대무리를 물리쳐들 것인가. 길은 우리를 넘는 정의와 향심의 눈길들이 조선을 지켜보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1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였다. 양통신 조진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나는 당신이 스위스련방 대통령으로 선거되는데 대하여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12월 6일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스위스련방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배 린

스위스련방 대통령

세모베라 줌마루가각하

나는 당신이 스위스련방 대통령으로 선거되는데 대하여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12월 6일

##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년전의 어느날 한 종합상점의 자그마한 불편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판매원으로부터 상품공급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세소상품이 떨어지지 않는가고 물으시었다.

판매원은 떨어지지 않고 잘 공급된다고 말씀드리었다. 그의 말대로 장화매대에는 수십가지의 세소상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있었다.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각각인 세소상품들을 눈여겨 살펴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리 보아야 바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었다.

매장을 바라보던 판매원은 고

## 명승지의 등산길에도

주제 98(2009)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울림폭포를 찾으시었다.

울림폭포로 가시던 길에 변계정각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일대의 경치가 아름답거나 묘향산 못지 않게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울림폭포를 향하여 행군을 계속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아름 명승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었다.

드디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 밀밭의 온기 문제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성시교공장에 새로 꾸러진 밀밭직장을 찾으신 날은 주제100(2011)년 9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뒤엎어 생각되는 밀밭을 보시며 만족해 하시었다.

일군들에게 밀밭직장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생산기술에 의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밀밭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그 일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창방대에 차려놓은 야외밀밭봉사매대에도 들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친히 밀밭 하나를

개를 속이었다. 바늘이 다 팔린 것을 알지 못하고있었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시며 바늘은 작지만 인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장비라고 하시면서 작은 상품이라고 하여 소홀히 생각하고

판매원은 떨어지지 않고 잘 공급된다고 말씀드리었다. 그의 말대로 장화매대에는 수십가지의 세소상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있었다.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각각인 세소상품들을 눈여겨 살펴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리 보아야 바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었다.

매장을 바라보던 판매원은 고

## 명승지의 등산길에도

주제 98(2009)년 10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울림폭포를 찾으시었다.

울림폭포로 가시던 길에 변계정각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일대의 경치가 아름답거나 묘향산 못지 않게 아름답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시종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울림폭포를 향하여 행군을 계속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아름 명승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었다.

드디어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 밀밭의 온기 문제

위대한 장군님께서 금성시교공장에 새로 꾸러진 밀밭직장을 찾으신 날은 주제100(2011)년 9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뒤엎어 생각되는 밀밭을 보시며 만족해 하시었다.

일군들에게 밀밭직장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생산기술에 의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밀밭을 더 많이 생산하라고 그 일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창방대에 차려놓은 야외밀밭봉사매대에도 들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친히 밀밭 하나를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평양 12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작별였다. 양통신 조진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나는 당신이 스위스련방 대통령으로 선거되는데 대하여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제103(2014)년 12월 6일

##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고있을 때 이 땅에서는 역사적인 눈보라가 일어났다. 고통과 압박, 봉쇄의 광풍을 쳐갈기고

역풍을 길들이며 우리 조국의 북면에서 일어났던 강계의 눈보라였다.

지나온 년대들이 이땅에 내내 천 시대정신들을 그 얼아였었다. 그 위대한 시대정신들이 줄기차게 판독되어온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은 강계정신에도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사회의수호의 위대한 정신이 창조되던 그 시기 자강도를 현 지지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하는것이 있으나 아니면 완전히 종말을 고하느냐 하는 인류사적문제도 무겁게 실려있던 준엄한 시기였다.

과연 무엇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것인가. 무슨 힘으로 할 나라, 한 민족을 목표로 달려드는 제국주의대무리를 물리쳐들 것인가. 길은 우리를 넘는 정의와 향심의 눈길들이 조선을 지켜보

##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고있을 때 이 땅에서는 역사적인 눈보라가 일어났다. 고통과 압박, 봉쇄의 광풍을 쳐갈기고 역풍을 길들이며 우리 조국의 북면에서 일어났던 강계의 눈보라였다.

지나온 년대들이 이땅에 내내 천 시대정신들을 그 얼아였었다. 그 위대한 시대정신들이 줄기차게 판독되어온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은 강계정신에도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사회의수호의 위대한 정신이 창조되던 그 시기 자강도를 현 지지도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하는것이 있으나 아니면 완전히 종말을 고하느냐 하는 인류사적문제도 무겁게 실려있던 준엄한 시기였다.

과연 무엇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것인가. 무슨 힘으로 할 나라, 한 민족을 목표로 달려드는 제국주의대무리를 물리쳐들 것인가. 길은 우리를 넘는 정의와 향심의 눈길들이 조선을 지켜보

주제 89(2000)년 6월 강계정신이 창조되던 나날을

들이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세소상품이 떨어지지 않는가고 물으시었다.

판매원은 떨어지지 않고 잘 공급된다고 말씀드리었다. 그의 말대로 장화매대에는 수십가지의 세소상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있었다.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각각인 세소상품들을 눈여겨 살펴 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무리 보아야 바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었다.

매장을 바라보던 판매원은 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신천군 호암리당위 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당을 위해 모든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정력적인 사상러려활동과 타월하고 세련된 행동에 깊히 인신취기 위한 사업을 강행, 해설당와 예술전선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고 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조직별특성과 단위의 실

##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 내 조국을 더욱 빛내여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직음

##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그러하여 모든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정력적인 사상러려활동과 타월하고 세련된 행동에 깊히 인신취기 위한 사업을 강행, 해설당와 예술전선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하고 있다. 또한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에 대한 학습을 조직별특성과 단위의 실

## 대내 결세위원의 감동깊은 추억이었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창조한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후대들에게 깊이 전해주시려는 뜻깊은 당부가 아니였는가. 사회주의의 운명을 관가리하는 력사적시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창조되고 전제 인민의 힘찬 창조물들을 이 나라에 타인된 투쟁정신, 강계정신은 우리의 사상과 힘, 우리의 힘과 기술, 이 땅의 자원으로 강성국가건설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는 김일성민족의 역설 기강으로 되었다.

백두산대국으로 존엄높은 오늘날의 우리 조국을 차지하는 영광을 생각할수록 천만민들은 고난의 행군의 나날을 잊지 못한다. 우리 인민의 생명이자 생활인 사회주의를 가장 존엄한 시련의 나날에 백혈불굴의 정신, 자력갱생의 시대정신으로 수호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찬란한 미래와 더불어 불멸할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본사기자 한 영 민



# 모락의 소굴을 송두리채 짓붕개버릴것이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는 말이 있다. 별 하찮은것들이 아무리 방해를 논다 해도 그에 구애되지 않고 제 갈길을 간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너무 지겹게 깃어대는 개무리는 행렬의 돌벼락을 들스름가리키었다.

미국이 추종세력들을 규합하여 유엔에서 반공화국(인권)소통을 악랄하게 벌리는 것은 선군의 기치높이 기세차게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무모한 헛웃음에 불과하다. 결코 새삼스러울것은 아니다. 우리는 달밭에 새 깃는 소리같은 이런 도발행태를 수습해야 보아왔고 그에 대해 조소를 머금고 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지은 반공화국소통은 오히려 우리 인민들이 자기 위급의 정당성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는 정반대의 결과만 낳았을뿐이다.

통일방중이라는것을 조작하려고 발방하고있는것도 그것을 말해준다.

원래 피퇴들의 반공화국모략행동은 그 력사가 정말 뿌리깊고 추하기 그지없다. 남조선이아말로 오래전부터 동족을 해치기 위한 모락의 소굴로 되어왔다.

일찍이 피퇴들은 미국의 부추김밑에 《북의 군대와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자 한다》고 떠들면서 배라살로 등 광란적인 모략선전을 일삼아왔다. 피퇴들은 력사적인 7.4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비방중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를 짓밟고 반공화국모략소통에 미쳐달랐다. 피퇴군부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측 지역에 살포한 배라살 해도 무려 19억 1800만여 장에 달한다니 더 말할 무엇하겠는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후 피퇴 후 북남군사당국사이에 모든 심리전을 중지하고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자 피퇴들은 배라살로로 조국과 혈육들을 저버린 인간쓰레기들과 국우보수단체들을 내몰고 저들은 뒤에서 적국 후원을 하는 등 교활한 수법에 매달렸다.

최근 피퇴정권이 이르러 반공화국모략은 최절정에서 감행되고있다.

현인 피퇴정권은 《대통령》갑툭수를 쓰기도 전인 2012년 반공화국모략선전에 앞장선 인간쓰레기들로 구성된 범피단체 결성식에 《축하메시지》라는것을 보내어 이러한 자로들을 다 짜내려 붙여준다. 이자들을 공공연히 청와대에 불러들여 격려해주는 놀음을 벌였다. 그런가하면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에 반공화국모략 단체들을 끌어들이는 당풍도 부렸다. 집권자가 《통일시대》를 열기 위해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떠들며 뒤에서 피퇴통일부와 《새누리당》에게

리들이 거꾸대기로 《북인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고이대며 모략모작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 현실이다. 그 비렬하고 악랄한 도발소통의 연장으로서 피퇴들이 유엔에서의 반공화국(인권결의)조작에 앞장서고 제 집안에서는 《국민통일방》이라는것을 내오려고 분주함을 피우고있는것이다.

모락의 소굴에서 벌어지는것은 그뿐이 아니다. 피퇴들은 이미 오래전에 분산 배치되었던 정보원의 여러 반공화국모략 부서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지금껏 《내복심리전》에 종사해온 음모군들을 몽땅 끌어들이었다. 정보원산하의 《연수소》를 《내복심리전》으로 확대하고 해마다 수많은 모략군들을 길러내어 동족대결로 내몰고있다. 한편 조국을 반역한 인간 쓰레기들에게 정상적으로 《공작금》이라는것을 대주고있으며 심리모략을 위한 기지까지 꾸려주고있다.

피퇴통일부도 반공화국모략의 본산이다. 거기에는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대결의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통일교육실》, 《통일교육원》따위의 기구들이 수두룩하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기 위한 《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원》따위의 기구들이 수두룩하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기 위한 《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원》따위의 기구들이 수두룩하다.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기 위한 《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교육지침서》, 《통일교육원》따위의 기구들이 수두룩하다.

늘어냄으로써 극악한 민족반역자, 동족대결광신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자들이 미국에 추종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행동에 앞장서고있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높은 권위와 영향력을 훼손하고 동족대결정세를 합리화하며 여론의 이목을 떠돌려 민심을 수습하고 통치위기를 극복해보려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

남조선피퇴들이 저들의 흉악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반공화국(인권), 심리모략에 미쳐달렸으므로 북남관계를 총체적 파국과 전쟁발발국면으로 몰아가고있는것은 매우 엄중한 사태이다. 지금 피퇴정권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존엄과 자존심을 참을수 없게 만드는것이다.

가장소련은 모략광신자들에게는 상식과 리성이 통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렇다.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으로 반공화국(인권), 심리모략소통의 가담자들과 흉악한 음모가 꾸러지는 피퇴부자들을 모조리 초토화해버릴것이다. 이것은 피퇴정권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존엄과 자존심을 참을수 없게 만드는것이다.

가장소련은 모략광신자들에게는 상식과 리성이 통하지 않는다는것이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렇다. 무자비한 복수의 불벼락으로 반공화국(인권), 심리모략소통의 가담자들과 흉악한 음모가 꾸러지는 피퇴부자들을 모조리 초토화해버릴것이다. 이것은 피퇴정권의 무분별한 도발행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존엄과 자존심을 참을수 없게 만드는것이다.

## 반공화국(인권)모략소통을 규합

### 재조조선공민중앙협회 성명 발표

재조조선공민중앙협회가 반공화국(인권)모략소통에 광범하는 남조선피퇴당을 규합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피퇴정당이 유엔에서 조작된 반공화국(인권결의)에 대해 《환영》이니, 《국제사회의 우려》인양이니 하며 가소롭게 늘어놓는가 하면 《국회》에서 《북인권법》강행처리, 유엔(북인권사무소)설치하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이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이것은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동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고 도전으로서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고있으며 박근혜당이야

말로 가장 극악한 대결광신자, 미제의 특등식민지 노복이라는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놓은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가장 인민적인 정치와 인민사랑의 해례를 참다운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인권문제로 말한다면 집 권력력이 《세월》호참사를 빚어내고도 아닌보살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시위행위를 가차없이 탄압하는 남조선에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인민적악정에 시달리며 생을 포기하는 남조선, 남조선강경 미제침략군에게 막대

한 유지비를 섬겨바치면서도 미군으로부터 갖은 모욕과 인권을 유린당해야 하는 남조선이아말로 인권폐허지대이다.

피퇴정당이 죄를 짓고 도망간 인간쓰레기들까지 국제무대에 끌고다니면서 반공화국(인권)모략소통을 악랄하게 벌이는것을 공화국의 위력과 존엄을 훼손하여 동족대결정세를 합리화하며 반인민적악정으로 하여 남로 심각해지는것을 공화국의 통치위기를 수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조조선공민중앙협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인민적악정에 시달리며 생을 포기하는 남조선, 남조선강경 미제침략군에게 막대

### 재조조선인총련협회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담화 발표

재조조선인총련협회 길림지구협회 부회장 김철수가 피퇴정당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통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담화는 유엔총회 제69차 회의 3위헌결의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범피적인 반공화국(인권결의)가 남조선에 도입되고 인민의 존엄과 제도를,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이고 도전으로서 경제 해외동포들의 처사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밝혔다.

피퇴정당이 그 무슨 《북

인권법》조작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가 하면 남조선에 유엔(북인권사무소)를 설치하여 반공화국(인권)모략소통을 내세우고 압박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연습, 인간쓰레기들의 배라살로 당풍에 대한 비호조정을 북남관계를 더욱 위험한 파국에 몰아넣었다고 규탄하였다. 그 속심은 남조선 사회의 참혹한 인권실태를

가리키는것과 함께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며 어떻게 하나 저들의 더러운 체제복합악당을 실형해보려는데 있다고 깨달았다.

남조선피퇴들은 반공화국(인권)소통에 날뛰는 미국 의 악당이라고 단죄하였다.

담화는 남조선피퇴정당이 반공화국(인권)모략소통으로 하여 초래될 파멸적후과가 어떠한것인가를 새겨보고 경각당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KBS) 방송에 의하면 민중들 서울에서 민중주요 서울지역본부와 공무원로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힘을 모아 반공화국(인권)모략소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현 《정권》의 일방적

인 공무원연금개악행동을 저지하고 민중의 생존권실현을 위해 힘을 합쳤다고 선언하였다.

최근 피퇴정당은 《공공기관의 재정적자》를 운운하면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줄이는 연금개악에 광분하고있다.

지난 10월 27일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다.

《국무회의》장소로 나타난 피퇴 집권자는 올해중 이를 무조건 실시하라고 출혈을 불어넣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조성되자 공무원 연금을 줄이는 문제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형평성을 고려한것이라고 하였다.

전국공무원로조 총력투쟁 본부는 《정부》가 4대 강사업 을 비롯한 현세 양비에 대해서 는 책임을 묻지 않고 공무원들

의 이익을 침해하고있다고 하면서 개혁안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11월 1일 남조선전지역의 공무원, 교원 12만여명은 서울에서 대규모집회를 가지고 재정적자를 내 장본인들이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돌리고있다고 깨달으면서 800만 공무원, 교원들과 그 가족들의 분노를 합쳐 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서울지역 각계단체들이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조직적인 투쟁에 나선것은 반인민적악정으로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는 현 피퇴정권에 대한 울분의 폭발이다.

집권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피퇴정권은 분노한 민심을 똑바로 보고 경각당동하지 말아야 한다.

《인권》의 간판을 단 대결악법조작책동

지금 피퇴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고 천만군민의 일상생활을 허물기 위한 《북인권법》으로 집중되고있다. 보수집권세력이 벌리고있는 《북인권법》조작책동은 그 한 실례이다.

피퇴정당은 유엔에서의 대조선(인권결의)체제를 《북인권법》조작을 위한 기회로 삼으면서 올해안으로 어떻게든 이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악을 쓰고있다.

보도원부와 같이 지난 11월 21일 《새누리당》은 5개의 《북인권법》을 하나로 합친 통합안이라는것을 피퇴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의 교섭단체위원회에서 상정된 뒤 《법안심사위원회》에 넘어간 상태이다. 피퇴들의 도발적인 《북인권법》체택행위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있다. 이런 속이 허위와 날조, 기만으로 《북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청탁하는 추태를 부렸다.

하지만 《북인권법》이라는것이 과연 어떤 대결의 골동품인가 하는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피퇴보수세력이 이전에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통에 편승하여 주물러낸 《북인권법》이라는것은 있지

### 공무원연금개악을 반대하여 연대투쟁



### 종교의 말을 쓴 평화파괴행위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북진단살포 및 애국봉투발대 운동대행위원회》가 7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피퇴군부대들의 반공화국심리전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기독교연합회》가 국방부의 승인아래 이날부터 애국봉투발대에 《정적식》놀음을 위한 임시시설물설치공사를 시작하여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종교활동보장》을 이유로 시설물설치를 승인하였지만 그것이 실지 종교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것을 저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있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국방부가 고조된대결을 앞세워 북에 대한 심리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심리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행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공무원연금개악을 반대하여 연대투쟁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북진단살포 및 애국봉투발대 운동대행위원회》가 7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피퇴군부대들의 반공화국심리전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기독교연합회》가 국방부의 승인아래 이날부터 애국봉투발대에 《정적식》놀음을 위한 임시시설물설치공사를 시작하여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종교활동보장》을 이유로 시설물설치를 승인하였지만 그것이 실지 종교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것을 저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있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국방부가 고조된대결을 앞세워 북에 대한 심리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심리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행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산골마을이 자랑하는 우리 선생님

산골마을이 자랑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 마을은 산골마을이지만 교육의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그들의 열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 박찬관 지배인 김대영 동무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말없이 자기 맡은 일을 실속있게 하는 습은 애국자들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박찬관동무는 평안북도 조천군판관리국적으로 전두령되고 일 잘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다.

지난 시기는 물론 올해에 들어서도 이곳 판관에서 맡겨진 석탄산간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있다.

여기에는 제 한몸을 석탄처럼 불태우며 탄부들과 한몸이 되어 생산을 힘있게 떠밀고 나가는 지배인 김대영동무의 노력이 크게 깃들여있다.

매해건 이곳 판관의 뜻밖의 일로 판관의 위치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지배인 김대영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석탄생산에서나 꾸러기, 탄부들의 물질문화생활 등 모든 면에서 언제나 기발을 들고나간 탄관, 그래서 늘 자랑할만 단위로

### 공무원연금개악을 반대하여 연대투쟁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북진단살포 및 애국봉투발대 운동대행위원회》가 7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피퇴군부대들의 반공화국심리전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기독교연합회》가 국방부의 승인아래 이날부터 애국봉투발대에 《정적식》놀음을 위한 임시시설물설치공사를 시작하여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종교활동보장》을 이유로 시설물설치를 승인하였지만 그것이 실지 종교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것을 저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있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국방부가 고조된대결을 앞세워 북에 대한 심리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심리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행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산골마을이 자랑하는 우리 선생님

산골마을이 자랑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 마을은 산골마을이지만 교육의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그들의 열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 덕을 보는 보배산

은총광산에 가면 누구나가 대형장터벨트콘베어수송선을 따라 펼쳐진 푸른 숲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일 일념안고 대형장터벨트콘베어로 나무를 싣고 가꾸었다. 이들의 애국열의에 의해 오늘날은 바르도미우에 아카시아 나무와 파인나무, 꽃나무를 비롯한 150여종의 수림이 조성되어 광산의 풍치를 한껏 돋

### 산골마을이 자랑하는 우리 선생님

산골마을이 자랑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 마을은 산골마을이지만 교육의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그들의 열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 공무원연금개악을 반대하여 연대투쟁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북진단살포 및 애국봉투발대 운동대행위원회》가 7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피퇴군부대들의 반공화국심리전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기독교연합회》가 국방부의 승인아래 이날부터 애국봉투발대에 《정적식》놀음을 위한 임시시설물설치공사를 시작하여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종교활동보장》을 이유로 시설물설치를 승인하였지만 그것이 실지 종교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것을 저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있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국방부가 고조된대결을 앞세워 북에 대한 심리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심리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행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공무원연금개악을 반대하여 연대투쟁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북진단살포 및 애국봉투발대 운동대행위원회》가 7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피퇴군부대들의 반공화국심리전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기독교연합회》가 국방부의 승인아래 이날부터 애국봉투발대에 《정적식》놀음을 위한 임시시설물설치공사를 시작하여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종교활동보장》을 이유로 시설물설치를 승인하였지만 그것이 실지 종교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것을 저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있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국방부가 고조된대결을 앞세워 북에 대한 심리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심리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행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산골마을이 자랑하는 우리 선생님

산골마을이 자랑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 마을은 산골마을이지만 교육의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그들의 열정은 학생들의 미래를 밝게 해줍니다. 그들의 헌신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줍니다.

### 공무원연금개악을 반대하여 연대투쟁

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대북진단살포 및 애국봉투발대 운동대행위원회》가 7일 경기도 김포시에서 피퇴군부대들의 반공화국심리전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기독교연합회》가 국방부의 승인아래 이날부터 애국봉투발대에 《정적식》놀음을 위한 임시시설물설치공사를 시작하여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종교활동보장》을 이유로 시설물설치를 승인하였지만 그것이 실지 종교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는것을 저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있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최근 남북간 군사적긴장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국방부가 고조된대결을 앞세워 북에 대한 심리전을 강행하려 한다고 단죄하였다. 심리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행동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